



2023년 제23회 우정선행상 수상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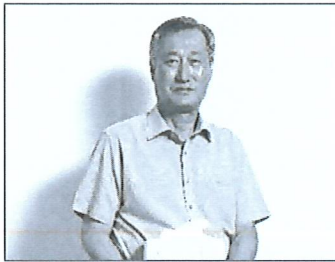
대상



상록야학

'상록야학'은 2022년 10월 영면한故 박학선 교장이 배움의 기회를 얻지 못한 이들을 위해 1976년 마련한 배움터이다. 50대부터 80대까지 약 100명의 학생들이 못다 한 학업을 잇고 있으며 40여 명의 교육봉사자들이 중·고등학교와 초등학교 과정을 비롯, 일종의 시민 학교인 '열린강좌'를 열고 있다. 또한 제때 학교에 다녔더라면 누릴 수 있었던 소풍, 체육대회 등 다양한 행사가 마련된다. 현재는 아내 한윤자 씨가 상록야학의 초심을 이어가고 있다.

본상



강봉희 씨

강봉희 씨는 연고 없는 고인들의 마지막을 지켜온 장례지도사이다. 2003년 대구가톨릭대학교 평생교육원 장례지도학과에서 함께 공부한 선배배들과 봉사단을 꾸려 강 씨를 포함, 여덟 명의 운영진들이 장례의 전 과정을 진행하는 것은 물론, 일부 회원들의 회비와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원되는 장례비 80만 원을 제외한 모든 비용을 충당하고 있다. 대구 코로나 19 확산 당시 아무도 하려 하지 않던 시신 수습을 도맡아, 석 달 동안 스물네 명을 배웅했다.



김정심 씨

김정심 씨는 1980년부터 온갖 질병과 사투하며 이·미용 봉사를 이어왔다. 미용 자격증을 취득한 후 봉사를 시작한 그는 20대 때 심장이 망가진 상태로 시한부 판정을 받은 데다 강직성 척수염을 앓고 있음에도 서울시립남부부녀보호소, 해방모자원 등 소외 여성이 있는 곳을 비롯하여 요양병원, 사회복지관 등에서의 이·미용, 병원 안내, 사무보조 봉사 등을 통해 일주일을 봉사로 모두 채워왔다.



손으로 하나되어

수어 통역으로 청각장애인들과 그 가족의 소통을 돕고 있는 '손으로 하나되어'는 다양한 이유로 수어를 배운 네 명이 모여 2003년 창단했고 현재 열두 명이 활동 중이다. 청각장애인들이 참여하는 행사에 수어 통역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청각장애 어르신들과 문화 프로그램을 함께하기도 하고 청각장애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비장애인 자녀인 '코다(CODA, Children Of Deaf Adult)'와 부모 사이의 소통을 돕는 활동을 하고 있다.



이웅열 이사장(가운데)과 대상 수상단체, 상록야학의 한윤자 교장(우), 황기연 교무부장(좌)



제23회 우정선행상 수상자들과 이웅열 이사장(앞줄 오른쪽에서 세 번째), 심사위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